



3면

"의석수 감사, 전북 홀대 결정권"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음 10월 26일) 제3401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경제 영토, 세계로 뻗어나간다

전북도, 2024년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 관련기사 3면

전북도·전주시 공동 주관 특자도 출범 앞두고 접경사 내년 10월 한옥마을서 개최

고국 균형발전 염원하는 한인 기업인들, 전북 지지 "새로운 전북 발전 계기"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가 국내외 한인(韓人)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행사인 '2024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를 유치했다.

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외동포청이 주관한 '2024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구 한상(韓商)대회)' 개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전북도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재외동포청과 외부 위원들의 현장실사 결과와 유치회방지역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이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운영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전북-전주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인 약 3,000여명의 경제 네트워크



7일 전북도가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모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전북서출본부 사무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실국장들과 유치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행사인 '2024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동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 3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경험 없는 전북이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전북도는 고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한인 기업인들, 특히 운영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을 지지한 운영위원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낙후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 도민들에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전북도는 대회 개최지 공모에서 전

시장과 연회장, 호텔 등 기반 시설이 경쟁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수요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성과 거양(擧揚) 전략(BPA, Business Promotion Agency)을 제시하고, 한옥마을 등 전북의 유·무형 유산 그리고 산업을 연계해 해외 한인 기업인들의 전북 방문 의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한상 대회가 한인 비즈니스대회로 격상된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인 만큼 대회 취지에 맞게 전북의 강점 산업분야인 식품, 그린바이오, 이차전지, 탄소, 건설기계 등을 넘어 로봇, 전기차, 통신, 의료기기, 동물케어, 금융 등 신산업, 신서비스 분

야에서 폭넓은 비즈니스 협상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전국적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협력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국내 기업들과 연계함으로써, 대회 참여 국내외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8기 취임 이후 해외 한인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거점 확대, 해외 기업 유치 등 글로벌 경제협력 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 해 제20차 울산대회에 이어 올해 제21차 미국 애너하임대회에 참가해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전북 유치 노력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된다.

대회 유치 후 김관영 도지사는 "대회 유치가 세계 각국의 운영위원들과 기업인들의 전북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애정이 결정적이었다"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의 열정과 약속에 대한 지지를 신뢰와 성과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가 전주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규모와 내실을 모두 갖춘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천년고도의 역사와 전통, 현대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고창군 부안면 럼피스킨 방역대 해제

416농가 대상 임상예찰 정밀검사 후 이상 없어

전북도는 7일 도내 럼피스킨 3차 발생지인 고창군 부안면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안면 방역대는 지난 10월 30일 럼피스킨이 발생된 이후 반경 10km내 416호가 이동제한이 금지된 지역이다.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관 42명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16농가에 대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어 7일 오후 1시부터 방역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에서 해제되는 416 농가는 이날부터 생축의 가축시장 출하와 판매가 가능하고 8일부터는 전국으로 생축의 이동도 가능하다.

다만,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와 소독, 외부인(차량) 농장출입금지, 외출시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들러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습관화해야 한다.

이성호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태어난 럼피스킨 백신 미접종 송아지 6,008마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3일간 접종을 했다"며, 가축전염병은 우리 축산인들이 간과한 사소한 실수를 파고들어 결국 큰 피해로 돌아오므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축사 소독, 청결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 망성·황등 종계농장 2곳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전북도는 지난 6일,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종계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해 익산시로 신고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체계지구심사 거쳐 131개 조문 의결... 오늘 본회의 상정 예상

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에 대기하면서 국가예산 막바지 활동과 함께 법사위 정회 시간에는 개별 의원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체계지구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

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생명산업을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의 분류는 강점 확

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채류 등 특례가 반영돼, 향후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내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로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특별법 명칭은 비전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김재훈 기자



무주 겨울을 열다

짜릿짜릿한 겨울
포근포근한 겨울
낭만가득한 겨울

무주에 오면 다 있습니다
무주를 열면 다 있습니다